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6년 6월 8일(월) 조간부터 즉시 배포 가능
제 목: 「광복100년 국민동행」 6월 10일 제1차 공론마당 개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기자
발 신: 광복100년국민동행 준비위원회 (info@korea2045.org)

“포용과 공존, 절제와 대화로 열어나가는 광복 100년”

「광복100년 국민동행」 제1차 공론마당 개최
오는 6월 10일(수) 오후 2시, 정동 프란체스코회관 체칠리아홀

박명림 교수(평화·민주주의) 및 정규호 박사(생명·생태) 기조 발제

광복 100년(2045년)을 향한 대한민국의 비전을 시민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 마련
원로·중견·청년 세대 통합형 토론 구조로 전국 지방선거 직후 첫 사회적 합의 모색

시민사회의 자발적 미래 준비 기구인 ‘광복100년 국민동행’(이하 국민동행)이 오는 6월 10일(수)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회관 체칠리아홀에서 **제1차 공론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3일 종교계, 학계, 전직 군 장성 등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각계 원로 인사 153 명이 시국 책임을 통감하며 제안문을 발표한 이후, “이념과 세대를 넘어 국민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토론 마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의제별 공론화의 장이다.

이번 제1차 공론마당의 핵심 의제는 ‘**평화·민주주의**’와 ‘**생명·생태**’로, 대한민국이 마주한 대내외적인 과제와 국가 전환의 방안을 다룬다. 국민동행은 더 큰 목소리로 상대를 밀어내는 기존의 정치·사회적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 함께 살아가는 ‘공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스스로 지키는 ‘절제’, 그리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난 3월 제안 발표회에서 이부영 준비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 이면에 드리운 짙은 분열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성세대에 있다”고 반성하며, “오늘을 기점으로 상대를 배척하는 언어를 거두고 ‘포용과 공존, 절제’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윤공희 대주교, 이해동 목사, 오대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등 종교계 지도자들을 비롯해 강우일 주교,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 장관, 황석영 작가, 김중배 전 한겨레 사장 등 사회 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포용과 공존, 대화가 없다면 한국이라는 공동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민동행의 가치 실현에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준비위원회는 제안문을 통해 “합리적 보수와 개혁적 중도, 성찰적이고 상식적인 진보가 유연하게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고 논의하는 공론의 장, 이념과 세대를 넘어 국민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토론 마당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제1차 공론마당은 바로 광복100년을 향한 핵심 의제별 사회적 토론의 출발점이다.

□ 세대 통합형 연속 공론화의 시작... 현장 중심의 결과물 도출

이번 공론마당의 가장 큰 특징은 원로, 중견, 청년이 함께 무대에 올라 의견을 교환하는 ‘세대 통합형 토론 구조’를 채택했다는 점이다. 일방적인 발표 중심의 세미나를 지양하고, 원로·중견·청년 세대가 같이 마주 앉아 발언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특정 전문가 집단의 결론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대가 각자의 언어로 같은 의제를 토론하여 공감대를 넓히고 합의의 바탕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특히 좌장의 종합 정리를 통해 도출되는 ‘1차 공론 결과문’은 7월에 이어질 2차 공론마당의 자료로 활용되며 논의를 심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 제1차 공론마당 세부 프로그램 및 참석자

행사는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의 사회 및 좌장 아래 총 3시간 동안 밀도 높게 진행된다.

- **제1세션 [평화·민주주의]:**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가 기조발제를 맡아 민주와 평화를 위한 한반도의 과제와 세계화 방안을 제시한다. 지정 토론에는 법학계 원로인 박은정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박준규 한반도청년미래포럼 창립자가 나서 세대 간의 시각을 조율한다.
- **제2세션 [생명·생태]:** 정규호 박사(생명학연구회 부회장)가 발제자로 나서 눈앞의 현실로 닥친 기후·생태계 붕괴 위기를 경고하고 생명 가치 중심의 대안을 제안한다. 이에 대해 유정길 녹색불교연구소 소장, 한운정 녹색연합 공동대표, 장운석 녹색연구활동가 등 현장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시간	주요 내용
14:00 ~ 14:10 (10분)	개회 및 취지 설명 (사회: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14:10 ~ 14:30 (20분)	[발제] 평화·민주주의 의제 (박명림 연세대 교수)
14:30 ~ 14:45 (15분)	평화·민주주의 세대별 지정토론 - 박은정 (이화여대 명예교수, 법학) - 박준규 (한반도청년미래포럼 창립자)
14:45 ~ 15:15 (30분)	평화·민주주의 의제 전체 토론 (세대별 교차 토론)
15:15 ~ 15:25 (10분)	중간 휴식 (Break)
15:25 ~ 15:45 (20분)	[발제] 생명·생태 의제 (정규호 생명학연구회 부회장, 박사)
15:45 ~ 16:00 (15분)	생명·생태 의제 세대별 지정토론 - 유정길 (녹색불교연구소 소장) - 한운정 (녹색연합 공동대표) - 장운석 (녹색연구활동가)
16:00 ~ 16:30 (30분)	생명·생태 의제 전체 토론 (실천 대안 모색)
16:30 ~ 17:00 (30분)	종합 토론 및 정리 (두 의제 통합 심화 논의 및 1차 결과문 정리)

□ 향후 일정: 7월 2차 공론마당을 거쳐 8월 14일 공식 출범 및 선언문 발표

국민동행 준비위원회는 이번 평화·민주주의, 생명·생태 의제의 1차 공론마당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 10일(금) '기술/경제/노동' 및 '교육/세대/젠더'를 주제로 하는 제2차 공론마당을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1·2차 공론마당에서 축적된 국민 참여형 논의 결과물들을 집대성하여,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금) 공식 발족식에서 정권과 시대를 초과하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자산인 '광복100년 국민동행 선언문'을 발표하고, 'Korea2045' 운동의 공식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할 예정이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3월 제안 발표회에서 이부영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원로 153인이 기성세대의 책임을 통감하며 '포용과 공존, 절제'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했고, 이번 공론마당은 바로 그 다짐이 처음으로 구체적 실천의 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치러진 제22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이후 정국이 급변하는 시점인 만큼, 갈등의 정치를 연대와 공존의 문화로 전환하려는 이번 공론화 작업이 우리 공동체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귀중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시민, 사회인사는 물론 언론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이 상 -

□ 광복100년 국민동행 소개

'광복100년 국민동행'(이하 국민동행)은 2026년 3월 3일(3·1절 107주년) 이부영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종교계·학계·문화예술·시민사회 원로 153인이 기성세대의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며 출범을 제안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미래 준비 기구다. 특정 집단이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이념과 세대를 넘어 국민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열린 공론의 장이다.

비전은 '포용과 공존, 절제로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다. 핵심 가치인 '포용'은 서로 다른 생각과 삶의 모습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너른 마음이고, '공존'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태도이며, '절제'는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하지 않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스스로 지키는 자세다.

국민동행은 이 가치를 바탕으로 ▲ 포용·공존·절제·대화로 사회적 약속 재정립 및 시민참여형 공론화 확산 ▲ 기후·생태 위기 해법 공론화 및 현실적 대안 모색 ▲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경험·지혜 공유 ▲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일상 문화 조성 ▲ 공론 성과물의 사회적 자산화 등을 추진한다.

오는 8월 14일 광복 81주년을 기점으로 공식 창립대회를 열고 '2045 국민 참여 선언'과 함께 'Korea2045' 운동으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공론마당을 시작으로 여름까지 이어지는 세미나·포럼·연찬회를 통해 참여 인사들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준비해 나간다.

웹사이트: korea2045.org

문 의: 광복100년국민동행 준비위원회 사무국 (info@korea2045.org)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45 SK리첼블 509호

언론담당: 이명호 기획위원

email: lee.myungho@gmail.com, HP: 010-8716-8515
